

코로나19로 또 다른 시련 닦친 백화점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이 세상에 '백화점'이란 형태의 판매장이 등장한 것은 약 169년 전이다. '세계사 속 경제사(김동욱 저)'에 따르면 1852년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스티드 부시코란 인물이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형태의 점포를 열었다. '봉마르세(Bon Marche)로 이름이 붙은 이 점포는 내·외관이 극도로 화려한 대형 건물이었으며, 각양각색의 상품을 정찰제로 판매했다. 이른바 백화점이란 곳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봉마르세는 파리 최대의 사교 살롱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일부에서는 봉마르세를 베르사유에 버금가는 '소비의 궁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봉마르세는 1852년 50만프랑이었던 매출이 1860년에는 500만프랑, 1870년에는 2000만프랑으로 급증했다고 하니, 당시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분명하다.

이후 백화점은 세계 각지에서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봉마르세에 이어 파리에 라파에트, 프랭탕이, 런던에는 휘틀리, 해러즈, 셀프리지가, 밀라노에는 리나

센터가, 베를린에는 베르트하임이 생겨났다. 도쿄의 미스코시, 뉴욕의 메이스와 스트리트, 마살필드 등도 1890년대를 전후해 생겨났다.

식민지 상태였던 조선에도 이들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백화점이 등장했다. 식민지 조선에는 1929년 오늘날 서울 명동 근처를 이르는 훈마치에 미스코시백화점이 들어선 이후 미나카야백화점, 히라다백화점이 잇따라 들어섰고, 남대문로에 조지야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백화점 거리로 이름을 날렸다.

식민지 시절이었지만 고객이나 소비자 준은 결코 일본이나 서구열강에 뒤처지지 않았다. 당시 경성의 인구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5개의 백화점이 성업했다. 시설도 최첨단을 걸었다. 1931년 화신 백화점이 설립됐는데, 화재로 1937년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6층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해외에선 1989년 런던 해러즈백화점이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기기를 설치했고 뉴욕의 감벨백화점이 1927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앞선 수준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들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가뜩이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뼈를 깎는 각오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자의 숫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들자 집합을 나가기 꺼려하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백화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최근 문을 연 '더현대서울'은 백화점 설계의 '금기'인 유리창을 설치해 고객들이 유리창을 투과해 들어오는 빛을 쬐며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곳곳에는 실제 나무를 심어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등도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체험 마케팅에서부터 전국 각지의 '강자'들을 불러보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백화점 매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점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소비자들을 집박으로 끌어내려는 백화점 업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이다. 백화점 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볼 일이다.

/유통&라이프부장 yhj@metroseoul.co.kr

'진보의 금기' 군인연금 수술



기지 수첩
송 태 화
(파이낸스&마켓부)

몇 달 전 '공적연금 수익률 꼴찌 군인연금, 이젠 손 볼 때' (1월 26일 자 본지 1면)라는 기사를 썼다. 작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불평등한 지급 구조가 바뀌지 않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늘었으니 군인연금도 더는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도 적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1044조7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매년

수십조원씩 급증·급감하고 있다. 국가부채 전체가 연금 문제에 갇혀 왜곡된 셈이다.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처럼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이 적자 전환되리라 추정할 시점은 2044년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현재 추세론 실제 시기는 이보다 더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상은 문제를 말해준다.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바닥 드러내고 있음에도 개혁의 가닥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군인연금을 비롯한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설계는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만 커질 뿐이다.

계급 정년이 있고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군업무의 특수성을 도외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 방식을 노후보장 성격의 연금하고 명확히 구분 짓자는 것이다. 군인

아파트 확대나 주택수당·주거보조금 지급, 자녀양육 지원과 교육 시설 건립, 최종적으로 급여 수준을 올리는 것까지 여러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노동력 재생산비용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다.

더는 군인연금 개혁을 진보의 금기로 여겨 성역에 가둬선 안 된다. 해가 갈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연금혜택은 줄어든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그냥 수긍할 것을 강요하면 특수직연금과의 극단적 불균형이라는 모순에 대한 저항만 더 세질 뿐이다.

구멍 난 재정과 심각한 불형평성이란 두 문제를 모두 치료하기 위해선 군인·공무원 연금의 수술이 유일한 해법이다. 천장에서 비가 새면 빨리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바가지질 놓고 물만 받는 땀질만 할 때가. /alvin@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시작은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1	9				
5								8
	3				9			
8			4			5		
7						3		
5			2				1	
		7					1	
9								5

			4				1	
	1		9	4	8			3
8								5
7								3
		9					7	
3								1
9								4
	7		1	5	4			9
		6					5	

정답

4	6	7	8	1	2	5	9	3
9	2	9	4	7	8	8	1	6
8	1	9	6	9	7	4	2	5
6	1	4	7	2	8	9	5	3
9	8	1	9	6	2	7	4	5
7	9	2	8	1	9	6	8	1
1	9	6	9	8	7	9	2	7
8	4	8	2	9	7	1	6	9
2	7	9	6	8	1	4	9	8

7	2	9	6	8	8	9	4	1
8	6	9	7	9	1	9	2	7
4	1	8	2	9	4	9	8	6
1	4	6	9	2	8	8	9	9
2	9	7	1	8	8	6	9	4
9	9	8	9	6	7	1	2	7
9	2	4	8	1	9	2	6	8
9	8	2	8	4	6	7	1	9
6	8	1	2	9	4	7	9	9

고난이도의 월드컵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5월 6일 (금 3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뒤늦은 독서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48년생** 재미구멍 하나로 독이 무너질 수 있다. **60년생** 능력보다 많은 일을 해 내는 날. **72년생** 직장에서 의견 손해가 있을 수 있다. **84년생** 승진에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흐뭇한 하루이다.
- 37년생** 부정하 타협에 말려들지 마라. **49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다. **61년생** 오후부터 상승 운이니 결정은 오후로 미뤄라. **73년생**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하고 지루.
- 38년생** 호랑이띠와 거래는 만류. **50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다. **62년생** 떠나기도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가 되겠다. **74년생** 조인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하는 법. **86년생** 작은 일로 언쟁이 생겨 크게 될 수 있다.
- 39년생** 여제의 결심이 오늘 현창로 들어온다. **51년생** 몸이 마음을 따라 주지 못하는 하루. **63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주는 것도 좋다. **75년생** 조금씩 화를 부른다. **87년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좋은 소식이 온다.
- 40년생** 유행에 따를 필요까지 있을까. **52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집안 청소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64년생** 서명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76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88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 41년생** 새 생명 탄생으로 화목. **53년생** 남모르게 배운 선행이 나에게 돌아온다. **65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이치. **7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89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 42년생** 중점이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 **54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살펴야 하는 날. **66년생** 작은 먼지가 눈물을 내게 하니 주위를 잘 살펴라. **78년생** 지나친 운동이 몸을 더 해친다. **90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나 내게는 별로 쓸모가 없다.
- 43년생** 영업목표를 이룬다. **5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우정이 있다. **67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79년생** 시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를 보내라. **91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다 보면 결과가 좋다.
- 44년생** 잃어버린 물건을 오후에 찾는다. **56년생**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진다. **6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작은 지출을 하는 것도. **80년생** 수고로움이 오늘의 결과를 좋게 한다. **9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을 찾지 않으니 마음을 바꿔라.
- 45년생** 건디기 어려운 시련도 지나간다. **57년생** 장거리 여행을 나설 일이 생긴다. **69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물다라도 두드리고 건너라. **81년생** 흐르는 대로 내 버려두면 절로 굴러간다. **93년생** 꽃피고 새가 우니 움직일 때이다.
- 46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아랫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라. **58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 **70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에 유의. **82년생** 불만이 있어도 누구를 탓하진나. **94년생** 미워진 일에서 기적처럼 이익이 발생됨.
- 47년생** 꿈이 큰 만큼 실망도 크다. **59년생** 구실수를 조심하고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해야 한다. **71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날. **83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니 기쁘다. **95년생** 희비도 종이 한 장 차이.



김상희의四季
도화운(運)

남자들도 화장을 하며 구걸이 착용은 흔하다 못해 악세사리 축에도 끼지 못하는 시절이다. 아주 옛날부터 중세를 거쳐 근세 직전 왕조시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도 유럽의 왕족 귀족들 이집트의 파라오를 비롯한 중국의 황제와 왕족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왕이나 그 일가들이 착용했던 금은보석의 장신구는 발굴되는 피라미드나 무덤에서 반드시 출토되는 유물이기도 하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을수록 외모를 치장하는 화장과 비싼 장신구는 당연한 필수였다. 사주학에서는 도화운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작게는 주변 넓게는 사회적 인기를 얻는데 호재가 된다. 타고난 재능이 좋다 하더라도 도화운이 있는 사람은 널리 이름이 나게 되는 유명세로 이어지게 되나 도화운이 없거나 약할 때는 그저 친한 친구 사이에서나 인정받고 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다.

과거 전통시대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 여성들의 도화운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다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거나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현대사회는 매스 미디어로 즉시적으로 소통하는 시대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재능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도화운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시절인연을 잘 타고 태어난 것이 된다.

사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도화살 이야말로 후천시대의 질서에 가장 재평가되어야할 신살(神殺)이다. 절대 다수의 관심과 인기가 필요한 직군에서 천군만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는 안정적 가정을 이루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개인사적 관점만 배제한다고 본다면 말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791호	